일주문

수선회 5주년 특별법문

숭산 화계사 조실은 10일 오후 1시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참선모임 수선회의 창립 5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한다.

노인복지단체련 회장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은 5월 25일 열린 2001 경기도 노인복지연찬회에서 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에 선출됐다.

선암사 강원 1천만원 기탁

금융 태고종 광주 · 전남교구 지방종회부의장은 5월21일 선암사 강원에 후원기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수미정사 봉불 · 개원법회

해주 동국대 교수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부암동 수미정사에서 부처님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언론인회 정기총회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장은 12일 오전 12시 불교방송 2층 언론인회 사무실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를 갖는다.

코렉트신탁 사장 취임

강명수 공정거래위원회 정불회장(前 행정법무 담당관)은 5월 24일부로 (주)코렉트신탁 사장으로 취임했다.

탤런트 장동건 장기기증 서약

인기 탤런트 장동건 씨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키로 했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1일 장동건씨가 서울 압구정동 모 스튜디오에서 홍보용 사진을 찍으면서 장기기증 신청서에 서명했다면서, 장씨가 앞으로 생명나눔실천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나눔회 관계자는 "장씨가 '홍보대사라면 당연히 장기기증까지 해야할 것'이라면서 연예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서울 성북동 성라암에 다니면서, 손목에 단주를 차고 다닐 정도로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져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인터넷 통해 법음 전세계 전달"

국제전자불전학회 새회장 보광 스님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이 구축되면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인도나 중국을 찾던 전 세계 불자들이 한국을 불교의 중심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 스님이 5월 26일 동국대서 열린 국제전자불전학회(EBTI) 정기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뽑혔다. 보광 스님은 "나라별 개인별로 추진되고 있는 불교경전 전산화 작업이 입력 등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전 세계로 보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제전자불전학회 정기총회에서 불교경전 전산화 사업의 주요 발전 목표로 삼은 세계 불교 전자도서관은 여러 언어로 된 대장경은 물론 불교전자사전, 불교자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한 곳에 모아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무료로 서비스한다는 계획.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가 주축이 돼 추진한다. 국제전자불전학회를 뜻하는 도메인(ebti.org)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불교학자와 컴퓨터 관련 분야의 협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보광 스님은 "부처님 말씀 한 구절만 전해도 복 짓는 일이라 했는데 전자도서관은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인 셈"이라며 전자도서관 구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광 스님은 동국역경원과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가 함께 진행 중인 한글 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성과로 한글대장경 318권 가운데 첫 30권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책1, 2권에 이어 〈한국불교전서〉 2권과 3권도 6월말까지는 인터넷(ebti.dongguk.ac.kr)을 통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람 살리는 복지불사 도와야죠"

노인복지타운 기금 3천만원 낸 규현 스님

"복지사업을 직접 전개할 수 없으면 보조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꽃마을에 후원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는 자리에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을 초청, 안성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기금으로써 달라며 3,050만원을 후원한 서울 안양암 주지 규현스님.

스님은 "누가 하느냐 보다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연꽃마을의 숙원인 노인종합복지타운이 빠른 시일내 건립돼 노인들을 위한 불국토를 이루길 신도들과 함께 발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4년 전에도 연꽃마을 후원금 통장에 구체적인 연락처도 밝히지 않고 '안양암'이라고만 적은 채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 때부터 보시한 성금은 약 7,000만원. 어려운 절 살림살이에 적은 돈이 아니건만, 신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에 거금을 기꺼이 희사했다.

규현스님은 "대형건물을 신축하는 불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불사가 더욱 소중하다"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불자들의 무주상보시를 당부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불사는 4월 26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10년간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수행 – 학문탐구 풍토 만들터"

중앙승가대 총학생회장 일음 스님

"김포학사를 학문탐구와 수행의 도량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최근 중앙승가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장에 선출된 일음스님(사회복지학 3년)은 중앙승가대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상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 내외에서 중앙승가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일음스님은 "김포학사 시대가 열렸고 학문탐구와 수행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진 만큼 예전과는 다른 중앙승가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전법 일꾼 되겠다"

대전불교언론인회 김종완 초대회장

"대전불교언론인회의 내실을 다지고 도청, 시청 등 행정기관에서 활동하는 20여 개의 불자회 및 다른 지역 언론계 불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월 25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된 대전불교언론인회의 초대회장을 맡은 김종완(대전MBC 보도국장 · 54) 씨. 김 회장은 언론인회가 전법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대전지역 언론사의 불자 현황을 파악하고, 회원스스로 매일 아침 백제불교회관에서 108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3~4명의 회원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어,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매주 금요일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7월 말경에는 여름수련회도 계획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형제 폐지" 1人시위

Focus

불교인권위원회 상임대표 진관스님은 5월 30일 인권법당 안국동 길상사에서 국회의사당 앞까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며 1인 도보행진을 벌렸다. 스님은 행진도중 천도교 수운회관에 들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최시형 선생(천도교 2대 교주)을 추모하고, 김대건 신부의 사형지인 절두산성지를 방문해 독경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대 中천진대학과 교류 협정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5월 29일 교무위원 회의실에서 중국 천진대학과 교수 · 학생 교류 및 정기 학술회의 개최를 골자로 하는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천진대학은 106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과학기술분야의 명문대학이다. 사진은 조인서를 교환하는 송 총장(오른쪽)과 천진대학 교무위원회 주임 양위친 교수.

혜원정사 소년가장돕기 음악회

혜원정사(주지 효명)는 5월 26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음악회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2천여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이날 음악회를 통한 수익금은 부산시에서 추천한 20명의 중 · 고등학생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됐다.

「회당학원 50년사」 출판기념법회

■일시:진기55(2001)년 5월 29일 ■장소:위덕대학교 중강당

'회당학원 50년사' 출판기념회

회당학원(이사장 최해욱)은 5월 29일 위덕대학교 중강당에서 회당학원 50년 교육사를 기록한 〈회당학원 50년사〉 출판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회당학원은 지난 49년 건국고등공민학교를 시작으로 대구 심인중고등학교, 서울 진성여중고에 이어 지난 96년 경주에 위덕대학교를 설립했다.

여불련 전국 여성지도자 연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5월 27, 28일 양일간 속리산 법주사에서 '동양의 사회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제5차 전국여성지도자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의 '여성의 정치적 역할 증대를 위하여'란 주제발표로 시작된 이날 연수교육에는 경남지부 지도법사 지성스님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紫微垣과 大院君

韓國의 爲政者에게 告함

新羅의 元曉聖師도 義湘祖師와 함께 中國으로 佛敎遊學하고자 唐津의 內浦港口로 乘船하기 爲해 가든 途中 紫微垣을 發見하고 祖國의 民族的 矜持를 갖고 忽然히 回程 하였다는 說이 있는가 하면 唐의 風水宗匠인 一行禪師와 杜思忠도 紫微垣을 보고 歸國하여 언젠가는 新羅땅에서 世界를 統一하는 天子가 出現할 것이라고 豫言하고 記錄은 禁忌하였다. 또 高麗初 風水의 鼻祖인 道詵國師와 朝鮮의 無學國師도 紫微垣을 보고 將次 우리나라가 世界의 宗主國이 될 것이라고 秘傳하였다. 朝鮮末의 興宣大院君이 鄭萬仁禪師에게 紫微垣의 圖得을 懇請하였으나 不可理由로서 첫째 封建王朝體制가 崩壞하는 時代에 可用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대의 所有가 아니니 後日 有德君子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斷乎히 拒絶하였다. 그리고 只今의 德山땅에 當代君王之地를 點穴하여 그의 父親南延君을 遷墓케 하였다. 그리하여 一年後에 命福(고종황제)을 出生하였고 十一年만에 이르러 世子册封과 同時 攝政 大院君이 되었다.

그 後 萬仁禪師는 紫微垣 山圖의 一幅을 大院君에게 傳한 다음 곧 바로 海印寺를 거쳐 紫霞島로 晦名蹈跡하였다. 大院君은 이것을 刺繡하여 居室에 걸어두고 世界風水界에 있어 最上의 絶倫이라고 感嘆하였다 한다. 오늘까지 규장각에 所藏되었다는 說이 있다. 이 紫微垣 天子之地를 韓國正統風水大家인 哲山 丁世源明師께서 五十四年間 踏山끝에 마침내 機緣을 통하여 發見하였다. 이것은 우리 韓國이 國運隆昌할 時節因緣이 到來한 것이며 아울러 南北統一은 勿論 韓民族의 世界宗主化 時代가 開幕될 것을 豫告하는 瑞兆로 確信하는 바이다.

辛巳年 五月 十五日

韓國正統風水學會 會員一同 白

H·P 011-747-5035, 017-290-1289